

기획

예술의 낙원, 나오키시마를 가다

일본 중남부 해안의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 해상국립공원에 자리한 나오키시마(直島).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주민 200여 명에 불과한 작은 섬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오키시마는 180도 변신했다. 매년 전 세계에서 5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 들고 있으며 최근엔 세계적인 여행전문지 '콘데 나스트 트래블러(Conde Nast Traveler)'가 선정한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7대 명소'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는 땅속에 미술관과 호텔을 결합한 독특한 컨셉의 지중(地中)미술관과 베네세 하우스, 우수한 미술관, 오히라 미술관 등 크고 작은 미술관들을 한데 묶은 '나오키시마 프로젝트'를 빼놓을 수 없다. 한적한 섬마을에서 일약 예술 1번지로 거듭난 나오키시마와 오키야마현(岡山縣)의 미술관들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미술이 바꾼 섬 年 50만명 찾는 세계 7대 명소로

가가와현(香川縣)에 속해 있는 나오키시마에 가려면 우노 항이나 다카마쓰 항에서 페리를 타야 한다. 지난 9월28일 오전, 우노 항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로 붐볐다. 특히 푸른 눈과 금발의 외국인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다. 이날 하루만 해도 3천여 명이 나오키시마 행 페리에 몸을 실었다.

15분 후 선착장에 내리던 설치작가 야요이 구사마의 거대한 빨간 호박이 여행객을 반긴다. 선착장 뒤편으로 척척한 미쓰비시 제련소 건물이 들어서 있지만 야요이의 작품 때문인지 산뜻한 인상을 풍긴다. 여기서 해안도로로 10분쯤 차로 가야 그 유명한 지중미술관이 나온다. 개관 시간이 1시간이나 남았지만 매표소 앞은 입장권을 끊으려는 관람객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매표소에서 미술관으로 가는 길에는 지중미술관이 클로드 모네 재단으로부터 직접 구매 한 수련과 각종 꽃, 나무들로 풍성한 '지중 정원'이 나온다. 수련을 심은 이유는 미술관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바로 클로드 모네의 '수련' 연작이기 때문이다.

지중미술관은 이름 그대로 바다를 한눈에 굽어 보는 언덕에 보일 듯 말듯 숨어 있다. 지난 2004년 지중미술관은 '자연과 인간의 소통'을 모토로 문을 열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 특유의 노출콘크리트 스타일로 지어진 미술관은 건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긴 복도로 이어지는 동선과 기하학적으로 분할된 공간은 관람객의 침묵을 유도, 마치 예술을 기리는 신전 같은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더욱 흥미로운 건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월터 드 마리아(Walter De Maria),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의 작품 9점만을 위해 미술관이 지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들 작품의 공통점은 자연과 빛을 주제로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자연광선을 끌어들이는 공간에 전시된 모네와 월터 드 마리아의 작품은 색다른 감동을 준다.

'수련의 방'에는 모네 그림 5점이 걸려 있다. 수련의 색상이 빛을 받으며 시시각각 바뀌는 듯한 환시를 불러 일으킨다.

월터 드 마리아의 'Time/Timeless/No time'(2004년)은 지름 2.2m의 검은 돌로 만든 구와 27개의 황금빛 나무 오브제가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다. 계단으로 이어진 공간에 자리한 작품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며 경건한 느낌을 자아낸다. 빛을 소재로 만든 제임스 터렐의 'Open Sky'(2004년)와 'Open Field'는 관람객이 직접 전시장 안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 신비함을 체험하는 작품이다. 흰색유

니폼을 입은 직원이 전시장별로 관람인원을 8명씩 제한하는 데 이는 최대한의 감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이 같은 독특한 분위기는 관람객들에게 변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돌아 보는 성찰의 시간을 선사한다.

이처럼 한적한 섬이 각광받기까지는 한 기업인의 노력이 숨어 있다. 일본의 출판 교육 기업인 베네세 그룹의 후쿠다케 소이치로 회장이다. 평소 미술품 수집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1987년 10억 엔을 들여 섬의 절반을 사들인 후 '나오키시마 프로젝트'의 첫발을 내디

디었다. 지중미술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베네세 하우스는 1992년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호텔과 미술관 등 4개의 건물로 구성돼 있다. 미술관에는 브루스 나우먼의 네온 설치작품 '100 live and Die'를 비롯해 아리스 쿠넬리스, 야스다 겐, 리처드 롱, 데이비드 호크니, 앤디 워홀 같은 거장의 작품이 준비해 있다. 전시장뿐 아니라 해변 곳곳에도 작품이 설치돼 있다. 베네세 하우스 동쪽 입구에 설치된 야요이 구사마의 '(노란)호박'을 비롯 박 칼 아펠, 나카 드 생활의 생동감 넘치는 조각, 만 그레이엄의 미니멀한 설치작품, 스기모토 히로시의 사진 등 18개의 작품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특히 지난 6월 지중미술관 뜰머리에 동지를 튼 이유환 미술관으로 인해 나오키시마는 한국인들에게 더욱 각별한 곳이 됐다. 현재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왕성하게 활동중인 재일작가 이유환(74)씨는 크리스티 경매 등 국제무대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작가로 개관과 동시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후쿠다케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세워진 이유환 미술관은 아름다운 세토내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들어서 있다. 약 300평 규모의 미술관 역시 안도 다다오의 설계로 주변 지형에 맞춰 설계한 자연친화적 건물이다. 천장 없이 하늘로 뚫린 삼각형의 공간과 세 개의 전시실에는 점과 선의 선적인 추상작업의 변천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작가의 초창기부터 현재의 작품들이 오묘조밀하게 펼쳐져 있다.

'나오키시마의 프로젝트'에서 빼놓을 없는 또 하나의 '작품'은 '이예(家) 프로젝트'. 지난 1998년 시작한 이예 프로젝트는 마을 사람들이 떠난 빈 집을 복원해 현대미술작품으로 변신시킨, 일종의 아트 하우스 프로젝트다. 미야자마 다쓰오 등 현대미술가의 작품과 낡고 오래된 집의 기억을 버무려 일본의 전통과 미학을 보여준다.

다시 선착장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오탁케 신로의 'I ♥ 瀬' 목욕탕 프로젝트를 꼭 챙겨봐야 한다. 실제 영업하는 공중목욕탕을 일본 전역에서 가져온 잡동사니 같은 물건으로 꾸며 지역민과 관람객이 직접 소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지도에서나 만날 수 있었던 섬, 나오키시마. 황폐하고 쓸쓸했던 마을은 자연과 건축, 미술이 스며들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예술의 낙원'으로 되살아났다. 버려진 섬에서 글로벌 관광 명소로 부상한 나오키시마는 세상을 바꾸는 예술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적의 현상이다. /나오키시마=박진현 선임기자hpark@kwangju.co.kr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지중미술관 전경. 땅속으로 숨어든 듯한 독특한 컨셉이다. <photo by Fujitsuka Mitsumasa·나오키시마 지중미술관 제공>

섬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 모네·드 마리아·워홀 등 거장들 작품 즐비



나오키시마 지중미술관에 전시된 미국작가 월터 드 마리아의 'Time/Timeless/No Time'(2004년). <photo by Michael Kellough>



지난 6월 개관한 재일화가 이유환 미술관의 전시실 내부. 점과 선의 추상작업의 변천과정을 엿볼 수 있다. <photo by Tadasu Yamamoto>

후원=일본 오키야마 현(岡山縣)

Advertisement for Geumsoo Hotel. Features: www.geumsoojang.com, 내집같은 편안함!, 광주에는 금수장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객실요금 4만원부터. 부담 없습니다. 4-5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리합니다.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 차편 15분 거리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거리, 총장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분거리. 호텔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 객실 Free Wifi, 비즈니스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바, 연회 등 다양한 부대시설. 편안합니다. 한밤 한밤 직접 웨어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가족,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의 주요 고객.

Advertisement for moviehelic. Features: 영화에 빠지다, 평겨운 연인과 함께!!, 상무점, 하남점, MEGABOX, CINUS. 상무점: 1관 방가?방가! (12세), 2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3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4관 경우강호 (15세), 5관 22블렛 (18세), 6관 무적자 (15세), 7관 해결사 (15세)/심야의FM (18세), 8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15세), 9관 적인걸-촉천무후의 비밀 (12세), 10관 심야의FM (18세). 하남점: 1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2관 해결사 (15세), 3관 방가?방가! (12세), 4관 슈퍼배드 (전제)/레지던트 Evil 4 (18세), 5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15세), 6관 무적자 (15세), 7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8관 슈퍼배드 (전제)/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9관 아저씨 (18세)/해결사 (15세), 10관 적인걸-촉천무후의 비밀 (12세). MEGABOX: M관 심야의FM (18세), 2관 적인걸-촉천무후의 비밀 (12세), 3관 경우강호 (15세), 4관 22블렛 (18세), 5관 심야의FM (18세), 6관 방가?방가! (12세), 7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8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9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CINUS: 1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2관 적인걸-촉천무후의 비밀 (12세), 3관 경우강호 (15세), 4관 방가?방가! (12세)/무적자 (15세)/아저씨 (18세), 5관 22블렛 (18세), 6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7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15세), 8관 심야의FM (18세).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